

특집 : “변환기, 새로운 도서관상을 모색한다”

⋮

공공도서관,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한다.

⋮⋮⋮

정성택

서천도서관장
bluelet@paran.com



지난 2006년 9월 8일, 작지만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가진 태동이 있었다. 바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도서관법이 전면개정된 것은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도서관 관계자들에게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시행규칙이 발표되지도 않은 법의 조문을 놓고¹⁾ 필자처럼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은 도서관계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이자 초석이며, 우리가 가진 무기이자 수단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2007년 3월 27일 도서관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4월 5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동안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공공도서관 소속 사

1) 시행규칙은 2007년 4월 4일 문화관광부령 제161호로 공포되었다.(편집자 주)

서들의 시각은 어떨까?

법 개정을 위한 도서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필자가 근무하는 충남 지역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새로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 도서관법에는 도서관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조직으로 대통령 직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고, 지방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역대표도서관²⁾의 관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충남의 경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새 법에 기대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법 자체라기보다는 법의 운용에 있어 주체가 갖는
열성과 책임의식 그리고 노력과 지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 지역대표도서관의 관장이 5급 사무관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장급이다. 과장이나 국장급도 아닌 계장급의 부위원장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무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 또,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운영주체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인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도서관을 광역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심의를 하고 그 심의 내용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또한, 저물어가는 정부에서 구성된 위원회가 과연 힘이 실리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위원회 정부라고 일컬어지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 하에서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생겨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아냥거림도 이런 시각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2) 여기서는 새로운 법에 의한 지역대표도서관이 아니라 이전 법(「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3조에 의한 도서관협력망 체계 속에서의 지역대표관을 말하는 것이다. (편집자 주)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새 법에 기대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법 자체라기보다는 법의 운용에 있어 주체가 갖는 열성과 책임의식 그리고 노력과 지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은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그 실현의 결과물은 우리 도서관계의 노력을 통하여 국민의 지원과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조만간 윤곽이 잡히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시작이니까.

법은 방향성을 잡았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지원과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까? 필자가 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은 도서관도 지역과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겠지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의 주 이용층과 주력사업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서비스도 조금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겠지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의 주 이용층과 주력사업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서비스도 조금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지역의 도서관은 이용률이 높다. 사실 도시지역은 봉사대상 인구에 비해 도서관이 너무 적다. 아직 더 많은 도서관이 생겨야 한다. 근처에 큰 아파트 단지라도 있는 도서관은 주말이면 이용자로 가득하다. 아니, 그런 인구유입 요소가 없어도 대도시의 도서관은 항상 분주하다. 특히, 아동자료실은 주말이면 수천권의 책들이 대출·반납된다.

어느 세미나에서 뵈었던 아동자료실 담당자는 주말이면 거의 전쟁을 치루는 기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된 것일까? 주말이면 이용자가 넘치고, 단순 대출·

반납으로도 힘에 겨우니 이렇게만 유지하면 되는 걸까?

필자는 도서관이, 사서가 좀 더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 책이 나 많이 읽기만 하면 되는 걸까?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좋은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다면 더 값어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책에 대한 전문가인 사서가 적절한 책을 골라 주고 추천해 주면 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책을 어려워하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구연이나 스토리텔링은 어떨까? 책을 읽고 나서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역할극이나 독서감상화 그리기, 감상문 쓰기 지도는 어떨까? 아 참! 독서치료도 좋겠다. 책을 통하여

도서관을 더 많이 늘리고, 사서의 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을 위한 노력도 당연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도서관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기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참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좀 더 영역을 넓혀 성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처음엔 생소해하고 어려워하겠지만, 꾸준히 실행하다보면 조금씩 도서관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도서관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사서가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면 우리도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동안에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도서관에 지친 사람들은 도서관에 대한 기대를 버린다. 더 이상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결국 불만으로 쌓이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도서관의 적이 된다. 도서관에 가장 자주 오는 사람이 오히려 도서관의 적이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물론, 공간에서 인심난다고 내가 편해야 다른 사람에게 좀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을 더 많이 늘리고, 사서의 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을 위한 노력도 당연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도서관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근무 모습은 어떠한가? 도서관 이용자를 향

시골이기에, 도서관의 규모가 작기에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의
요구 수준은 대체로 그리 높지 않지만, 개인별 요구 수준의
차이가 크므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상 웃음으로 대하는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가? 힘들어도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그 요구의 다양성에 항상 놀란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그 요구사항을 비슷하게나마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한다.

도시의 도서관이 그렇다면 농어촌 등의 도서관은 어떨까?

사실 도시지역에 비하면 조금은 한가하다. 주말에도 수천권 수준은 아니고 수백권 수준이다. 다만, 도시의 도서관에 비하면 직원 수가 턱없이 적다. 중대형급 도서관이 수십명 수준인데 비해 시골의 도서관은 1인 사서인 곳이 대부분이다. 사서 혼자 모든 것을 다 한다.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은 평생학습관 역할까지 해야 한다. 수서, 정리, 열람... 사서의 모든 업무와 평생학습에 관한 모든 업무까지 거기에 행정직이 공석이 되면 행정업무까지 해야 하는... 말 그

대로 도서관의 거의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 서비스를 논하기는 참으로 난감하기만 하다.

하지만, 해야 한다!!!

시골이기에, 도서관의 규모가 작기에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의 요구 수준은 대체로 그리 높지 않지만, 개인별 요구 수준의 차이가 크므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도서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지역의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시골의 공공도서관은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급한 논문이나 자료가 필요한 학교 교사에게는 원문서비스나 상호대차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숙제 해결을 위해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주어야 한다. 도서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도서관 현장학습을 기획해 도서관의 의미를 어려서부터 심어줄 필요가 있다. 시골지역의 특성에 맞게 한글을 모르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해교실이나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개발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도서관은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그들은 도서관의 진정한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이런 모든 변화의 시작은 결국 나로부터이다.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하는 것이다.

한숨과 자기한탄을 던지고 밝은 미소와 열린 마음으로, 어차피 해야 할 일 이라면 이왕이면 즐겁게 하면 어떨까?

‘NO! 라고 말하지 말라. Yes! But,... 이라고 말하라.’

글을 쓰고 보니 항상 현장 사서의 모습이 달라져야하며 서비스 향상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등의 현장감 없고 현실성 없는 소리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사실 양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질적 개선은 항상 한계가 있고 희생만을 강요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공무원에 대한 퇴출의 목소리가 높은 지금이 오히려 음지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필자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어떤 도서관장의 말씀이 생각난다.

‘NO! 라고 말하지 말라. Yes! But,... 이라고 말하라.’

주어진 일에 안 된다고 말하기 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예산을 확보하라는 이야기였다. 더 나아가 일단은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도서관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사서가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면 우리도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은 자기변명의 당위성을 부여할 뿐이다. 일단 부족하나마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의 시작은 마음의 변화이다. 내가 변할 때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면 우리를 도와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항상 사서는 만능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또 도달한 듯하여 거듭 죄송스럽기만 하다.

필자가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한 이래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서구입비 예산이 한 해 5백만원도 안 되던 상황에서 이제는 열 배 가까이 늘어났다. 도서관에 한 대뿐이던 컴퓨터가 이제는 수십대가 넘는다. 디지털자료실이 생기고, 비도서자료 및 연속간행물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조개탄을 때던 도서관이 이제는 인버터 에어컨으로 냉난방을 한다. 무엇보다 전국에 300여개 남짓하던 도서관이 이제는 500곳이 넘는다.

이러한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패배주의나 냉소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은 나만 바라보는, 내 근무환경만 생각하는 좁은 시각 때문이 아닐까?

새로운 도서관법이 태동했다. 이제 도서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도서관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도서관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부디, 귀찮은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한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움직여 보자. 나의 작은 움직임이, 나의 작은 변화가 우리를 변화하게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합니다.” (㉮)